

可居島の 배밭 올리기와 멸치잡이 노래

趙 珉 玉

可居島는 木浦에서 102海里, 黑山島에서 44 海里의 距離에 있는 最西南端의 孤島로 中國의 上海와 靑島의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곳이다.

日帝時 “小黒山島”라 하였으나 辛酉年에 高壽正에게 내린 羅州 牧使의 牒紙에 보면 嘉佳島라 하였고, 그 후의 戶籍 單子에는 可居島라 記錄되어 있다.

可居島는 落島이지만 衣, 食, 住가 解決되어 能히 살 수 있다고 하여 可

居島라 呼稱하였다.

貝塚과 淸문토기, 석검, 돌도끼 등이 出土된 것으로 보아 이미 新石器 時代에 入島하여 開村한 것으로 믿어진다.

統一 新羅 時代 唐나라와 交易時에는 貿易船의 中間 寄港地였으며, 朝鮮 時代 壬辰倭亂에는 一時 倭軍의 軍事基地가 되기도 했다.

可居島의 面積은 8,180km²이며, 海岸線의 길이는 22km로서 魚種이 豊富하여 鮮漁로, 농어, 도미, 우럭 등 여러 雜魚와 미역, 툇, 돌김, 전복, 해삼, 성게, 홍합, 가리비, 소라, 천초 등이 採取된다.

可居島에는 大里(可居島里 1區), 項里(2區), 大豐里(3區) 마을이 있다.

大里에는 島內에서 第一 큰 마을로 面出張所, 警察支署, 初等學校, 併設 中學校가 있으며, 西南海의 漁船 前哨 基地로 船舶 待避港으로서 漁業과 海草 採取와 山野에 自生한 厚朴나무 껍질을 藥材로 팔아 크게 所得을 올리고 있다.

家口 193戶에 1,187名이 居住하고 있으며, 이 마을의 住民 거의가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項里는 東南風을 막아 주는 漁港으로 日氣가 不順하면 遠海에서 漁撈 作業을 하는 배들이 避港하는 곳이기도 한다.

46戶에 314名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높은 언덕인 野山에 자리잡고 있다.

大豐里는 大里 뒤편에 位置하여 海路로 50餘分の 距離에 있다.

24戶에 141名이 살고 있는 갯마을로 긴 階段을 밟아 오르면 마을이 있고, 바로 가까이에 좌물쇠 神을 모신 堂이 진두루 나무, 동백 나무 숲에 싸여 있다.

可居島에 있는 3個의 마을의 浦口 위에 널따란 空地 마다 數隻의 배들이 올려져 있는데 이는 배를 발로 올려놓은 것들이다.

□ 배발 올리기(배 올리기)

可居島는 茫茫大海에 位置 孤島로서 風波가 거센 地域이다.

갑자기 風浪이 일어 家族이 보는 海邊 가까이서 죽음의 이별을 하거나 大海로 漂流되기도 하는 곳이다.

바다의 操業이 끝나면 風浪이 없는 날에도 갑작스런 날씨의 변덕에 대비하여 배 설것이로 배를 풍파에 미치지 않는 곳으로(安全 地帶) 옮겨 놓아야 한다.

배는 住民(船夫)들의 가장 큰 財産이므로 所重하게 간수하여야 하며, 배 안에는 집안의 業神이기도 한 배서낭(배신)이 있어 잘 모셔야 豐漁가 들고, 家庭이 富裕하다는 것이다.

이런 所重한 배를 위해 배설것이 하는 것은 30餘年前만 해도 遠海地域에서 盛行했던 遺習이었으나 지금은 可居島 一帶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다.

可居島의 傳來된 船舶은 댐마, 싹판, 목선이 있는데 하노(민노), 전노, 겹노로 배를 향해하는 댐마(소형), 싹판(중형)이 있었고, 대형인 木船은 船尾(배의 뒤부분)에 큰 노 하나를 여러 사람이 저을 수 있도록 되었으며, 쌍돛을 달고 운항할 수 있었다.

木船은 배의 양옆 타락 윗부분 삼두폭을 떼어 내면 멀치 잡는 작업선이 되고 다시 삼두폭을 붙이면 육지인 木浦와의 生必品 運搬船이 되었다.

이 배들이 뱃질을 하고 들어오면 배의 뒷부분에 줄을 매고 바닷가로 끌어 당긴 뒤에 뱃사람과 마을 사람들이 손의 5배 힘이 있다는 발로 배를 들면 줄을 당겨 引揚된다.

누워서 배의 테두리인 타락에 발을 받쳐 배발 올리기 소리에 맞춰 풍파가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지대까지 끌어 올린다.

배의 양쪽에 5~6名씩 누워 발로 배를 들면 5~6명은 줄을 끌어 잡아 당긴다.

갑자기 風浪이 밀려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며, 이 때에는 서로 원수간사이라도 뱃줄을 잡아 주어야 한다.

만일 남의 일 보듯이 하면 마을내서 추방당하게 된다.

이 때 總指揮는 船主나 선소리꾼이 하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 배발 올리기 소리를 하며 이 소리에 맞춰 무거운 배를 쉽게 끌어 올린다.

▣ 배발 올리기 소리

맛과람이 세차게 들어 오고, 파도가 크게 일기 시작하면 조업을 중단하

고 돌아와서 배를 올린다.

배가 물가에 닿으면 뱃동무들이 노를 올리고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에게 외친다.

“맛파람이 들어오네
 동네 사람들 싸게싸게 내려와서 배들 올리게
 동네 사람들 배올리게 내려오소
 빨리 내려오소
 동네 사람들 배올리세”

뱃 사람들은 배에 줄을 걸고 배올릴 준비를 한다.

뱃 동무들과 마을 사람들이 내려와서 젊고 힘이 있는 사람은 배 밑에 누워 배를 들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에 걸어 놓은 줄을 끌거나 괴목을 깔아 배가 미끄러 나가도록 한다.

이 때에 지휘자는 뱃머리 위에 있거나 배 밖에 나와서 배올리기 소리를 메긴다.

배발 올리기 소리의 “이오찬이다”는 말은 中國語로 하나, 둘, 셋의 힘내기 말이다.

이 앞 소리를 받아 배를 올리는 사람들이 힘을 쓰면서 뒷소리를 한다.

뜻을 달고, 반세대를 거니는 풍어, 삼아, 두의, 갈아지, 등을 잡아
 우리 고장의 전통 어선으로서는



미량이 불면 뜻을 달고, 바람이 없으면 노를 거어 조업을 할 때 배로서
 제일 많이 조난사고가 났던 배, 우리 고장은 한 날에 세사가 된다.